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4
2025.12.01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영국, EU CBAM 대응 본격화, 9년간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 에티오피아-싱가포르 Article 6.2 탄소거래 협정 체결
- 모로코-스위스, 제6조 기반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
- 카자흐스탄, 제6조·ETS 전면 개편 선언
- 싱가포르 CIX, 12월부터 첫 CORSIA 1단계 현물 계약 런칭
- UNDP, 골드스탠다드 기반 탄소크레딧 조달 입찰 공고
- Verra, 최대 5만 달러 패스트트랙 검증 서비스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영국, EU CBAM 대응 본격화, 9년간 무상할당 단계적 폐지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자체 CBAM (탄소국경조정제)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화를 공식화

간접배출은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2029년까지 포함이 유예됨. 영국 ETS의 무상할당은 CBAM 적용 산업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초기에는 감축 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전체 일정은 EU CBAM 폐지 속도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영국과 EU 기업 간 전환 부담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중간재 내재배출 면제, 일시반입 면제, 환급청구 3년 제한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여러 완화 방안을 추가 도입

영국 CBAM은 EU CBAM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에 적용되며, 향후 정제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



에티오피아 - 싱가포르

Article 6.2 탄소거래 협정 체결

에티오피아가 싱가포르와 첫 Article 6.2 양자 탄소거래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본격화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6년 제정을 목표로 국가 탄소시장 법률을 마련 중이며, 일본과의 과거 CDM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 거래 재개도 추진 중

또한 에티오피아 항공을 국내 탄소크레딧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핵심 수요처로 지정하고, 항공권 예약 시스템에 탄소배출 상쇄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산림 기반 OFLP (Oromia Forested Landscape Programme) 프로그램은 CORSIA 준수를 위한 체계 전환을 준비 중

에티오피아는 한국, 스웨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를 포함한 우선순위 바이어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하며 아프리카 지역 탄소시장 허브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



모로코 - 스위스, 제6조 기반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

모로코와 스위스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SR500을 추진

2030년까지 500MW 규모의 설치를 목표로 하며 약 5억 달러 (약 7,400억 원) 투자가 동원됨.

ACS (아프리카 기후 솔루션)가 프로젝트 집합화 (aggregation), 디지털 MRV 구축을 맡아 감축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고, 스위스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ITMO를 자국의 감축 목표에 반영함.

모로코는 이를 조건부 NDC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며 상응조정 적용을 약속. 스위스는 2025~2030년 사이 3천만 톤 감축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 상당량을 해외 Article 6 프로젝트로 충당할 계획

모로코는 스위스와의 협력을 통해 약 6.5억 달러 (약 9,600억 원)의 경제 효과 및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위스와의 제6조 기반 재생에너지 협력이 확산되는 추세



카자흐스탄, 제6조·ETS 전면 개편 선언

카자흐스탄은 2035년 NDC를 강화하며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본격 확대하려는 계획을 제시

ITMO 발행·승인, 상응조정 적용, UNFCCC 레지스트리 연동 등을 포함한 전면적 제6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CCUS·그린 수소·합성연료·산업 탈탄소 등 다양한 파일럿 분야도 설정

한편 기존 ETS가 구조적 문제로 감축 성과가 낮았던 점을 반영해 부문 확대, MRV 강화, 레지스트리 현대화 등 대규모 개편을 실시할 예정

ETS 경매 수익 및 제6조 거래 수익을 기반으로 탄소기금을 신설하고, 국가 기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민간·국제 파트너를 연결하려는 점도 특징

카자흐스탄은 2035년까지 저탄소 전력 비중을 35%까지 올리고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점진적으로 탈피하려는 청사진을 제시



싱가포르 CIX, 12월부터 첫 CORSIA 1단계 현물 계약 런칭

싱가포르 탄소크레딧 거래소 CIX가 CORSIA 1단계용 실물 기반 현물 계약을 12월 1일부터 출시

CIX CORSIA Phase 1 X – Global Market (CIX CP1X-GM)은 1단계용 탄소크레딧의 즉각적인 실물 인도를 가능하게 함. 최소 계약 단위는 1 lot (1,000톤)이며, CIX의 커스터디에 보관 가능

이번 상품은 CORSIA 시장이 향후 유동성 있는 벤치마크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표준화된 실물 상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최근 ICAO의 배출량 공표 이후 항공사 수요 전망은 IATA 기준 최대 수억 톤까지 급증했으나 공급은 아직 2천만 톤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 다만 다양한 국가의 Article 6 승인서 발급과 표준기구의 보험체계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공급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UNDP, 골드스탠다드 기반 탄소크레딧 조달 입찰 공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를 실천하는 UN의 개발 전문기구 UNDP가 12월 초 마감되는 입찰을 통해 최대 8만 톤 규모의 골드스탠다드 (GS) 자발적 탄소크레딧 조달을 추진 중

구매 대상은 2021년 이후 GS에 등록된 신규 프로젝트로 한정되며 CDM 전환 프로젝트는 제외

해당 프로젝트 유형에는 쿡스토브, 20MW 이상 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 CCS (탄소 포집 및 저장), 산림 활동 (산림 파괴 방지, 재조림 등) 등이 포함되며,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별도의 추가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급자는 GS 레지스트리에서 이관·소각 권한을 보유한 계정으로 한정되며, 계약 후 2주 내 크레딧 소각을 완료하고 공식 상쇄 증서를 제출해야 함.

UNDP는 크레딧 구매 목적과 가격 가이드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금번 조달은 국제기구 차원의 자발적 크레딧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Verra, 최대 5만 달러 패스트트랙 검증 서비스 도입

Verra가 검증 승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파일럿 형태로 도입함.

프로젝트 발행 크레딧 규모에 따라 1만 달러 (약 1,500만 원)에서 최대 5만 달러 (약 7,500만 원) 까지 수수료를 부과

파일럿 기간에는 첫 번째 검증 요청은 대상이 아니며 두 번째 이후의 검증 요청만 우선순위 신청이 가능. 기술 검토 기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대기열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로 승인 보장은 없음을 명시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